【 해외금융뉴스: 북미 】

미국, 경기악화로 인한 보험사기 증가

□ 경기악화가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이론적 증거는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사례들로 볼 때 경기침체가 보험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미보험범죄방지국(National Insurance Crime Bureau) 관계자는 밝힘.

- o 전미보험범죄방지국은 최근의 경기침체가 보험사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향은 몇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고 설명함.
- o 하나는 보험사기 이 외에 은행이나 모기지 사기 등도 늘고 있기 때문에 한정된 수사관들이 보험사기 이 외의 조사에 투입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고, 다른 하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사기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임.
- o 보험사기는 매년 800~2000억 달러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며, 생명보험, 손해보험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.

□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자동차 등 개인 자산에 발생하는 유형뿐만 아니라 기업성 보험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o 보험사기는 특히 캘리포니아, 플로리다, 뉴욕 등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자신의 자동차를 고의로 없앤 뒤 도난으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.
- o 특히 자동차 딜러가 가담해 자동차의 도난이나 방화를 돕고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기존 자동차의 할부금을 갚거나 새 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음.
- o 기업성 보험에서는 화물을 도난당한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건물 밖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나 구리선 등이 사라졌다고 신고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.
- o 그 외에도 근로자재해보험(Workers' Compensation)을 악용하여 과다 청구하거나 위장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도 있으며, 보험모집인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보고됨.

(Insurance Journal, 4/14)